

지역 소식 통

정읍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달성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투명 행정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기초지자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94.05점을 기록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정량·정성 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기초지자체단체 평균 점수인 89.79점을 크게 상회한 94.05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었다. 특히, 도내에서 원문공개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공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장기요양 재택
의료시범사업 2곳 확대

고창군이 2025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대신연합의원, 현대의원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에서는 지난해 대신연합의원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현대의원이 추가 선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내 군 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2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5등급)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월 2회 방문한다.

방문진료·간호,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장기적 모니터링 등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드론산업 지역거점 도약한다

고창군,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첫 삼·심덕섭 고창군수 등 200여명 참석

드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첫 삼을 뒀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부지(성내면 조동리 145번지 일원)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 및 군의원,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산업과장, 한국교통공단 항공철도안전본부장, 성내면 이장단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75억원을 투입해 8만9560㎡(92만7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비행시험을 비롯해 드론자격, 드론교육을 진행하는 드론통합지원센터와 활주로(200m×20m) 및 88m×40m 규모 4면을 갖춘 실기시험장을 2026년 5월에 완공 예정이다.



센터는 건립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한다.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교육 인원이 1000여 명에 이르고 자격시험 인원만 1만 5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관련 산업의 확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고창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드론과 첨단물류, 반도체 등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고창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민생경제 회복 정책 최우선 추진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부안군은 정치불안정과 대외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내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부안사랑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확대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민밀착형사업 등이 포함된 2025년 부안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추진하

고 있다.

우선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100억원 확대했다.

올해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은 설과 추석 등 명절이 속한 달은 지난해와 같은 3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지난해 매월 20억원에서 10억원이 늘어난 3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또 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립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감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 실시, 상거래 질서

위반 소비자 피해상당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 특별보증 출연금 지급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이커머스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태출과 같은 소상공인 가계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가 대출이자 지원과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주민행복·주민편의사업 조기 추진 각종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군민과 함께 이겨낼 방침이며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취약가구 에너지 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반값 기차 타고 정읍 여행 즐겨요”

8일부터 월영습지·솔티숲 등 10개소 인증... 최대 50% 할인 혜택

이달부터 '정읍 반값 기차여행 시대'가 시작된다. 철도 운임의 최대 50% 할인 혜택으로 관광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정읍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시는 8일부터 기차를 이용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철도 운임의 50% 상당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읍을 비롯한 10개 지자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한 후 △코레일 특 앱 또는 레츠코레일 웹사이트에서 '지역사랑 철도여행' 카테고리에서 '지역사랑 철도여행' 카테고리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정읍 왕복 승차권(당일/1박 2일/2박 3일)을 구매하고 △정읍의 인증 관광지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해 QR 코드를 인증하면 된다. 이후 구매 운임의 40% 상당 할인 쿠폰을 다음 달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 면지역 전체에 인도형 제설기 13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보행자 안전 본격적 인도제설 실시

고창군이 면지역 전체에 인도형 제설기 13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인도형 제설기는 지난해 고창읍에 시범적으로 3대가 보급돼 눈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고창군은 선제적 제설작업을 위해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9개반 21명의 제설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9대의 덤프트럭과 마을 안길은 제설 봉사자 트랙터 24대, 읍·면 관용차 14를 동원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인도형 제설기가 도입되었지만 내 집 앞 눈치우기에 군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